

한국의 근대 전환기 관광(1880~1940)*

On the History of Tourism in Transitional Period of Korea
(1880~1940)

한 경 수 **

Han, Kyung-Soo

ABSTRACT

Under the historical context, this paper deal with the tour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Korea(1880~1940), which could be divided into enlightenment era and Japanese-ruling era. The former stands at the ending point of Chosun Dynasty during which domestic tourism followed traditional tourism patterns, while the latter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s, opening up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 in Korea. Author concludes that enlightenment age may be called a turning point stepping out of traditional patterns for domestic tourism and a daybreak for international tourism in both of the inbound and outbound. Japanese-ruling age, on the other hand, might be called a point modern tourism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burgeoned.

핵심용어 : 한국의 근대관광, 개화기관광, 일제강점기관광, 한국관광사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B00681).

** 계명문화대학 교수, 觀光史, 항공사경영실무, 관광마케팅, 국제관광 등에 관심이 많음.
e-mail: hks518@km-c.ac.kr

I. 서론

한국관광사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2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광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은 관련 논문에서 이미 주장된 바 있듯이, 관광학의 학문적 독립성 확보, 관광현상의 역사적 이해, 관광정책방향 및 실용적 측면에의 기여 등에 있다고 하겠다(한경수, 2001).

본 연구는 한국의 관광역사 중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인 1880~1940년대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의 조선방문이 188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고, 1940년 이후는 신문과 잡지의 폐간으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자에 따라 근대를 규정하는 개념, 해당 기간 등이 다르긴 하지만(2000, 임희완), 이 시기를 근대라고 부르는 것은 왕정시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국가의 정체가 변하는 시기로 해석된다. 관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조선이 외세에 의해 개방하고,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으나 철도와 같은 관광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외국인의 조선방문이 본격화되고 국내관광도 이전 시대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한국관광사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한국관광사 관련 연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기까지는 진행되었으나(한경수 등, 2001), 개화기 서구인의 조선관광(한경수, 2002)을 제외하고는 근대관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광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로 보이는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의 관광현상을 분석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여 한국관광사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관광현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으나, 한경수(2001)의 내용분석대상(관광유형, 관광사상, 관광용어)에서 볼 때 관광유형(관광대상, 숙박, 교통, 식사, 행장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관광유형(형태), 관광교통, 관광숙박, 관광홍보 등을 포함하는 다의적인 것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 시기의 관광에 관한 논문은 오정환(2002)의 호텔관광사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관광숙박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학 교재에서는 이 시기의 관광관련 사실(숙박, 교통 등)을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정찬중, 2004).

II. 자료의 탐색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해당 기간에 발행된 신문, 잡지, 여행기 등의 관광관련 내용을 역사적 시각에서 탐색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려하였다. 관광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출간된 기록물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개인문집 등도 있으나 자료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관적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자료를 시대별로 보면 1860년대-1910년까지는 주로 외국인의 조선여행기, 초창기신문, 일부 잡지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일합방이후 1920년까지는 자료가 미미하며, 1920년부터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양대 일간지 및 대부분의 잡지가 발간되어 풍부한 자료가 남아있다. 1940년에는 이들 대부분이 폐간되어 자료가 단절되어 있다. 분석방법은 문헌의 검색 → 관광관련 자료파악 → 자료읽기 → 내용분석 →분야별 정리의 단계를 거쳤다. 이는 사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관광사연구에서도 적용된 바가 있다(한경수, 2001) 문헌의 검색은 신문의 경우 DB화(PDF)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읽었으며, 잡지류는 전혀 DB화되지 않아 일일이 목차에서 관광 관련 항목을 찾아 해당 부분을 읽어보았다. 신문과 잡지류에서 관광관련 내용을 각각 발췌하여 정리한 다음 다시 관련된 공통사항 끼리 묶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을 겪었다. 신문

〈표 1〉 신문 및 잡지자료(1880 ~1940)

명칭	발간기간	자료 숫자	명칭	발간기간	자료 숫자
漢城旬報	1883. 10. 30 ~1884. 12. 4	10	朝鮮之光	1922. 9-1930. 11	6
漢城週報	1886. 1. 25 ~1888. 7. 7	3	조선문단	1924. 10~1935. 12	5
獨立新聞	1896. 4. 7. ~1899. 12. 4	98	신여성	1924(통50호)	9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1898. 4. 9~ 1899. 4. 3	20	조선농민	1925. 12~1930. 1	5
皇城新聞	1898. 9. 5 ~1910. 9. 14	128	신동아	1931. 11 ~1936. 9. 9	69
朝鮮日報	1920. 3. 5. ~1940. 8. 10	314	朝光	1935. 1~1944. 8	95
東亞日報	1920. 4. 1. ~1940. 8. 10	540	여성	1936. 4~1940. 12. 1	14
소년	1908. 11~1911. 5	18	신가정	1933. 1~	15
泰西文藝新報	1918. 9. 26 ~1919. 2. 17	0	외국인 여행기	1990년대 번역	22편

자료원 :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도서관, 계명문화대학교도서관 개인소장 자료.

등의 자료는 검색할 자료의 양이 많아 자료를 읽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되었으며, 일부 자료는 누락·소실·퇴락하여 읽기 어려웠다. 또한 1930년대 이전의 한글 표기법이 지금과 상당히 다르고 한자식표현·발음(국가명, 도시명 등)도 많아 읽는 속도가 현대한국어보다 훨씬 떨어졌다.

III. 개화기의 관광

1. 관광유형

1) 외국인의 조선여행

서구인의 조선 방문이 시작된 것은 1880년대부터이며, 외교관, 학자, 교사, 기독교 성직자 및 선교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성직자 및 선교사이다. 1897-1909년 사이에 조선을 방문한 기독교 관련자는 성직자 90명, 비성직자 15명, 선교사부인 85명, 여성선교사 58명 등이었다(계일:193). 당시 조선을 방문한 20여명의 외국인이 조선방문기를 집필하여 당시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선교여행은 대도시는 물론 관서·관북에까지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로 볼 때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이다(류대영, 221-226). 선교여행 도중에 주변 명승지를 찾기도 하여 관광여행을 겸하였다(한경수, 2002)

관광목적의 개인여행은 매우 희소하며 신문에 기사화된 것은 <표 2>와 같다. 외국인이 경성 이외의 지방으로 여행할 경우 외부(外部)에서 호조(護照)를 받아야만 했다.

<표 2> 개화기 외국인의 조선여행 예(개인)

이름	국적 및 신분	방문지	출처
버슈테 부부	미국의원	경성방문	독립, 1897.5.30
클레망쇠티	프랑스(법국) 우체교사	경성방문	황성, 1898.12.9
顯理(亨利)	독일(덕국) 친왕	부산지방 유람	독립, 1899.8.7
角田利輝	일본 육군소위	금강산 유력	황성, 1900.9.26
勃勃 친왕	스페인	한성방문	황성, 1900.12.8
살리	영국 여교사	평양·의주 유력	황성, 1902.4.26
호린신포	아라사 회담교신부	전국을 일년간 유력	황성, 1903.3.23
맥돈을(麥敦乙)	미국인	각도 유력	황성, 1904.4.27

자료 : 독립(독립신문), 황성(황성신문)에서 논자 발췌, 정리(일부만 게재)

2) 조선인의 국내외여행

(1) 국외여행

이 시기에는 외교관, 고관, 왕족 등의 외국여행이 자주 보도되었다. 미국 전권공사 Foote의 조선사절 본국행 보고(미국기선 모노가(毛魯哥)호 이용: 조선인 최초 미국방문)가 있으며(한성주보, 1883. 12. 9), 민영환·유길준·윤치호·박영효·의화군(영친왕) 등이 주요 인물이었으며, 여행지는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 각국 등이었다. 특히, 민영환은 1896년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특명전권공사로 인천-상해-나가사키-동경-캐나다-뉴욕-런던-모스크바-시베리아를 여행하여, 해외파견사절 중 최초로 세계일주를 하였으며(독립신문, 1896. 4. 7), 1897년 1월 영국 등 유럽 6개국 특명전권공사가 되어, 나가사키에서 아라사베를 타고 흑해 연안의 오데사(Odessa: 현재 우크라이나)로 간 기록이 있어 새로운 항로가 확인되었다(1897. 4. 10).

개인여행은 많지 않았으며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왕족 의화군의 일본·미국 여행(매일신문, 1898. 5. 31), 궁내대신 이재순의 東遊(황성신문, 1898. 10. 10), 학부협판 민영찬 파리박람회 참석(1900. 1. 8), 金永準의 상해·일본 역람(황성, 1900. 7. 7), 미국 유학생 朴致秀(1900. 7. 14) 등이다. 주업부(醜業婦)와 무뢰한(無賴漢)의 국외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빙표(憑票)발급 심사를 강화한다는 기사는 당시 이러한 부류의 국외여행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1900. 3. 17).

1880년대에 조선정부는 대일유학을 실시하였다(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79). 또한 1897년 일본유학생 77명(독립신문, 1897. 8. 17), 1899년 일본체류 조선인 196명(황성, 1899. 6. 7). 조선인의 런던 유학 기사(독립, 1896. 12. 10). 1902년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이 뉴욕(紐育) 5명, 상항 8명, 기타지역 10명, 오하요대학에 부인 1명이라는 기사가 있었다(황성, 1902. 10. 25; 1904. 1. 23).

(2) 국내여행

외국인의 조선여행기에는 조선인들의 국내관광 유형도 언급하고 있다. 왕의 행차구경, 과거, 소풍 및 나들이, 기타 오락(석전, 고래사냥구경, 정자 풍경완상 등)이 그것이다(한경수, 2002). 전라북도관찰사 이완용은 정읍·순창 등을 유람하면서 낭비와 행패 극심(황성신문, 1898. 11. 17), 궁내부 무관학교 교관 등의 경주 남한산성 유력(1902. 6. 6), 동문의 元(興)寺에서 수록대도량 행사에 관광하는 부녀가 운둔파분(雲屯波奔)하여 인산인해(1903. 3. 7) 등의 기사가 있다. 매음도 상당히 유행하여,

매음가를 문패로 구분하여 내국인 상대는 상화가패(賞花家牌)를, 외국인 상대의 경우는 매음녀의 별호를 붙이게 하였다(1904. 6. 8). 독립신문에 학생들의 화류, 놀이, 야회 및 뱃놀이, 유람(화륜선이용 인천행) 등 기사가 있다. 이 시기의 유일한 잡지인 「소년」에 유적지 탐승 등 관련 기사로 “반순성기(半巡城記: 1907.7-10)”, “평양행”(1909. 10) 등이 있다.

2. 관광교통

국제교통수단은 선박과 철도였다. 선박운항은 조선-일본-중국-노선이 중심이 되고, 미국은 일본(요코하마 또는 고베)을 경유하여, 서구는 동남아시아와 수에즈 운하(1869. 11. 17 개통)를 거쳐 이루어졌다.

(1) 국제해운

국제선박의 경우, 발견된 첫 기록은 뮐렌도르프 부부가 1882년에 유럽-수에즈운하-싱가폴-홍콩-상해-제물포 구간을 선박을 이용하여 조선에 입국한 것이다(뮐렌도르프, 21-37). 1879년에 병고환(제물포-일본:독립신문, 1897. 5. 30), 일본 우편선 “잇지코”(1897. 1. 28) 등의 기사가 있고, 1896년 당시 「제물포 輪船(火輪船) 시간표」를 보면 “흑게마루”, “견제마루” 등의 朝·日·中 선박운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1896. 4. 7). 또한 제물포에는 외국 병상선(兵商船)이 왕래하였다. 만저·보스톡·콜쓰·승아리(아라사), 덧란(독일), 尾張·筑後川·肥後·(일본) 등 이름의 선박이 한·중·일·러를 운항하였다(황성신문, 1899. 4. 7, 19). 병상선은 여객도 승선하였으며, 조범구는 일본 유학에 京城丸을 이용하였다(1903. 6. 26).

유럽-아시아간 해운은 1904년 E. Meyer & Co 소속의 Hamburg Amerika Linie 을 발견하였는데, 선박명은 S. S. Lyeemoon 등이며 제물포에서 상해로 가는 배로 신문광고를 하였다(대한매일신보 영문판, 1904. 9. 6). 이 해운사는 1898년부터 유럽에서 중·일·조선을 왕래하였으며, 선박명은 Rhenania 등이었다(1905. 2. 14). 미국기선으로는 Nippon Yusen Kaisha 소속의 Ohio호가 있었으며, 1010톤으로 제물포-고오베구간에 목포·부산·모지(Moji)를 경유하였다(1904. 9. 9). 국제우편선은 N.D.L. (Norddeutscher Lloyd Imperial German Mail Line) 이 2주일에 한번 함부르크·사우스햄프턴·나폴리·수에즈·콜롬보·페낭·싱가폴·홍콩·상하이·나가사키·고베·요코하마를 왕복하였다(1906. 9. 6).

(2) 국내해운

국내해운은 관련 기록이 매우 미약하다. 뮐렌도르프가 일본 三菱商船으로 부산 여행(한성순보, 1883. 11. 10), 한강화륜선(인천-용산) 1896년 운항(독립신문, 1896. 10. 27)등 기사가 있다. 1897년 世昌洋行(제물포 소재)의 화륜선(火輪船·汽船) 운항광고에 蒼龍號와 縣益號 라는 선박이름이 있는데, 창룡호는 제물포에서 국내북쪽 및 남쪽 2개 노선에, 현익호는 인천-상해, 인천-목포/장기도 등 노선에 운항하였다(1897. 4~10). 병상선으로는 우리나라 선박인 慶濟號(황성신문, 1899. 4. 13) 및 天草號와 住江號의 강화월곶·송도당호·해주용당·홍주한진·아산백석 운항(1903.9.24)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대한협동우선회사 소속의 日新號(국내운항), 順新號 및 漢城號(한일간)등이 운항하였다(1904. 3. 23).

(3) 철도

1898년 경성전기철로가 개통되어 경성 시내 교통의 편리함을 더하였다(독립신문, 1898. 9. 12) 국내철도는 1899년 제물포-노량진 구간에, 1905년 경부선이 완공되면서 조선도 철마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선 철도 이용은 매우 미미하였는데 1899년 경인선에는 일일 승객수가 300여명, 화물은 14-15톤 정도이며(황성신문, 1899. 12. 23), 하루 4차례 왕복하였다(1900. 3. 13)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 구간의 거의 중간지점인 이르크츠크까지는 이미 1898에 개통되었으며(1916년 완공), 캠프여사가 레닌그라드에서 이를 이용하여 조선에 입국한(1910. 2. 1) 기록이 있다(캠프, 1999).

3. 관광숙박

당시의 숙박시설은 외국인의 기준에서 보면 제물포 및 서울의 일부 호텔을 제외하고는 열악하였는데 조선시대의 전통 여각 또는 주막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을 여행한 선교사들의 여행기에서 상세히 나타나 있다(한경수, 2002). 여관은 1898년 한성 수포교다리 부근의 “한성여관 (독립신문 1898. 2. 10)과 인천항에 어상치계란(魚商雉鷄卵) 여각이 보인다(1898. 9. 2).

인천의 대불호텔에 관한 기록은 외국인의 여행기에 나오며, 인천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반드시 머물던 곳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로 보인다. 새비지-렌도어는 1890년말에 이 호텔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제물포에 3개의 호텔(Steward's Hotel, Hotel de Coree, 대불호텔/Giant)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새비지-렌도어, 28-30). 프라르 보테는 이 호텔에 대해 혹평을 하였다(프라르 보테에:19-20).

Steward's Hotel은 해운업체인 Steward & CO. 가 운영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4. 8. 9).

서울의 경우 두 개의 호텔을 신문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Grand Hotel 과 Hotel Palais가 그것이다. 전자는 이전의 Station Hotel로서 신문에 시설, 요금 등을 광고하였다(대한매일신보영문판, 1904. 8. 4). 후자는 궁궐 건너편에 위치하여 국내 유일의 일급호텔로서 프랑스 주방장을 자랑하였다(소유주 및 경영자 L. Martin). 당시 광고에서 요리집에는 서양요리와 숙박시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수월루"라는 요리집 광고(매일신문, 1898. 8. 23)와 홍릉 앞 서양요리집 광고가 그것이다(독립신문, 1899. 8. 30).

IV. 일제강점기의 관광

1. 관광유형

1) 외국인의 조선관광

1920-1940 기간의 자료를 통해 방문자의 국적, 방문회수(기사건수), 주관자, 규모(인원), 일정, 교통수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① 미국인 및 캐나다인의 조선관광(세계일주 관광단 포함)

1920년경부터 외국의 여행사(토마스쿡 등) 선박회사(함부룩아메리카라인)등이 주최하는 관광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신문기사가 있으며, 이외에도 상회(商會), 대학, 교사, 학생 단체가 주최하는 단체도 일부 있었다. 주로 일본·중국 등을 경유하였고, 대규모 단체는 선박으로 인천에 입항하여 임시열차로 당일 서울 관광을 하였고(인력거 이용), 1박할 경우 주로 조선호텔에서 묵었다(〈표 3〉참조), 또한 세계일주 관광단의 조선방문도 시작되었는데, 일정은 상기 단체 관광과 동일하였다. 1930년대에 매년 1~2건, 각 인원수는 250-300명 정도이다. 이들이 타고 온 주유선(周遊船)의 명칭은 후랑고니아, 프레시덴트 후버 등이다

〈표 3〉 미국·캐나다인의 조선관광(1920-1940년)

연도	횟수	주요 주최자(건수)	규모(총인원)
1920	11	뉴욕관광국1, 여행사(토마스쿡2, 아멕스1, 아메리칸스프링)	9~35명(159)
1926	3	여행사1(프랭크룩), 일반관광단1, 단체관광단(불명)	13~650(1003)
1927	2	유나이티드아메리카1, 불명단체1	390-450(840)
1928	6	합부룩아메리카라인1, 토마스쿡1, 미국세계일주단1,	20-400(950)
1929	2	합부룩아메리카라인1, 아메리카규나드·토마스쿡연합1	380-400(780)
1930	1	加奈陀 동양시찰단1	3
1934	3	日米협회1, 美슈라이나스1, 華盛頓대학자단1,	2-100(130)
1936	1	LA 상공회의소 주최. 상공업자	27
1937	2	항공국관광단1	20
1940	3	미국캐나다여교원단1, 日米협회1, 고교학연구단1	1-36(54)

자료원 : 동아일보(1920-1940)에서 논자 정리 (일부 게재).

② 유럽인의 조선관광

1920년 프랑스인, 1923년 폴란드인, 1927년 독일관광단 입국 등을 제외하고는 유럽인의 조선방문기사는 1930년대 말에 집중되어 있다. 그 회수나 방문객수가 미미하여 십수건에 불과하다. 방문목적은 주로 공무여행(군인·문화사절·경제사절·외교관)이었으며, 순수관광단체는 1건에 그쳤다. 국가별 방문건수는 독일8, 이태리3, 프랑스1, 폴란드2, 오스트리아1, 헝가리(洪國)1, 스페인1 등이다 (동아일보).

③ 남미인 조선방문

주로 1930년대 후반에 방문하였고, 순수관광단, 경제사절단, 여교사, 외교관, 대학생, 문예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돌아가서 조선관광기를 쓸 예정이었다 하니 실제로 해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의 조선관광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동아일보, 1931. 5. 30). 아이연정국(亞爾然丁國)의 “스시”씨와 “다이아즈”씨가 그 예이다.(1931. 5. 31). 국가별 방문건수는 아르헨티나4, 브라질3, 페루1, 멕시코, 볼리비아 등이다(동아일보).

④ 아시아인의 조선방문

중국인은 192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조선방문이 있었으나 4건에 불과하며 필리핀 1건(1934, 필리핀 군사령관) 등이 있다(동아일보). 일본인의 조선관광은 1921년 九州帝大學生 조선여행단 15명, 1933년에는 일본인의 조선만주시찰단이 다수 있었는데 대판신문주최 300명, JTB 주최 250명, 일본여행회 주최 200명, 육군사관학교전직견학단 280명 등이 그것이다(동아일보, 1933. 2. 17). JTB 대련지부의 조선시찰단모집(1933.11.8), 1934년 명고옥철도국주최 조선만주시찰단 4백여명 등도 있었다. 1935년 3월 중 일본-조선-만주 단체여행객은 14개 482명, 조선/만주에서 일본행 단체는 27개 1346명이었다(1935. 4. 1). 1935년 조선을 방문한 관광단체(일반, 만주/일본으로부터 온 수학여행단 등)는 885단체 총38500명에 달하였으며, 이 중 일본내지로 부터 330단체/15,500명, 만주방면으로 부터 80단체/3,200명이었다(1935. 11 .28).

2) 내국인의 국외관광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다양한 목적의 국외 여행이 시작되었다. 첫째, 당시의 잡지류에서 소개된 국외여행 관련 기사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선인의 국외여행 잡지기사(1920-1940)

구분	지역명(건수)	제목(잡지명:발행년월)
외국	구미,중국(1)	수륙 이십만리 주유기(조광1936.5~8)-중국, 독일, 영국, 미국
유학	독일 (1)	고학생의 일기(신동아1933.1)
	중(13), 러(2)	흑룡강성 별건기(신민1925.9), 중경의 견문기(조광 1942.6)
일반	일본 (2)	18세 소년이 동경에서 한 일기(조선문단 1925.4)
여행	구미 (16)	미국통신(조선농민1926.6), 이태리기행폼페이감상(조광941.1)
	동남아 (3)	남양답파기(신동아1935.1), 남해도기(조광 1939.8)
	세계일주 (1)	떨떨씨 뽀뽀군 세계일주여행기(신동아1933.8·9)
특수	구미 (2)	권투선수 미국원장(조광1937.6), 구주무용계견문기(조광938.11)
목적	일본 (5)	극동올림픽대회참관기(신동아1934.6), 내지농촌기행(조광944.2)

자료원 : 논자 정리 (일부만 게재)

둘째, 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인의 구미여행

1920년대 중반부터 신문에 기록이 있는데, 모두 개인 또는 소수인원의 여행이었다. 직업은 주로 의사, 교수, 사업가, 예술가, 종교인, 체육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여행목적은 세계일주여행(金善琪의 遊歐途中記, 동아일보, 1934. 10. 21), 유학, 종교집회참가, 대학·교육시찰, 체육대회참가(LA 10회올림픽), 사업(유한양행, 조선 무역상인 송승화, 1937. 7. 17), 청소년대회 참가 등으로 기독교 종교집회참가 및 지식층이 가장 많았다. 방문국가별로 보면 미국·캐나다 13건, 세계일주 2건(1927, 1933), 구주의 경우 덴마크 2, 스위스, 프랑스, 유럽순회 5건 구미(정인섭 1936) 등이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黃石公園) 방문에 관한 기사도 발견되었다.(조선일보, 1927. 11. 15).

• 조선인의 아시아 여행

개인여행으로는 朴春雨의 러시아여행(조선일보, 1929. 03. 30, 북국순례기), 한용운의 원산-블라디보스톡(海參崴) 여행(북대륙의 하룻밤, 1935. 03. 07)이며, 1937년 이약언목사 호주백년기념제에 조선대표로 참가 등이 있었다(동아일보, 1937. 7. 10). 일본이 1932년 만주국 설립한 때부터 北支(북중국)로의 여행이 증대하여 각지에서 만주시찰단을 공개 모집하였다. 여정은 대련-무순-봉천-신경-하얼빈 등지, 10-12일간, 요금 50-100원, 주최자는 상공회의소, 철도역, 신문사, 天-약방, 지방의회, 학교(수학여행) 등이었다(동아일보, 1930. 10. 31).

해외관광단의 모집도 이루어졌는데, 대만행 관광단의 모집은 JTB 조선지국이 철도국의 후원으로 1931년(1931. 7. 19) 및 1932년(1932. 12. 23)에 각 차례씩 실시되었다(부산-대만-상해-항주-부산: 13일간). 또한 블라디보스톡 관광단 모집은 청진상업회의소가 주최하는 해항관광단(海港觀光團) 모집기사가 있다(1928. 4. 12). 1935년 통계(1-11월)에 의하면 조선으로부터 만주에 여행한 단체는 140개6,300명에 달했으며, 전년대비 40%증가하였다(1935. 11. 28).

• 조선인의 일본여행

1920년대의 경우는 첫째, 개인여행 기사는 찾기 어려웠다 둘째 관공서 주최관광단 5건으로 공무원 및 지방 유력인사가 포함되어, 보통 3주간일정으로, 동경·대판·나라 등을 순회하였다. 셋째, 공진회(共進會) 참가 관광단으로 大分縣공진회(日本九州八縣聯合共進會: 1921. 3개최)에 참가하는 것으로 4건이 보인다. 넷째, 박

람회 참가이다. 오사카도시박람회에 경성부 공무원 20명(20일간, 1921. 5. 3)의 여행하였고, 평화박람회(1922. 4-6. 동경개최) 관광단은 92개단체 4,168명에 이르렀다(1922. 3. 28). 다섯째, 기타 경성 시내 학부형교육관광단(1920. 5. 2), 적십자조선본부 동경총회참석(1921. 3. 13)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일본관광 열기에 대해 언론에서 비판하였다. 즉 “저주하라! 평화박람회, 동포여! 관광을 단연 중지하라”(동아일보, 1922. 5. 4)가 그것이다.

1930년대 순수여행단은 용산철도국 원측부(遠足部)의 일본여행단모집 5박6일(1932. 12. 18), 철원역의 벚부견학단모집(7일, 1934. 2. 10), 신대인역의 구주여행단 모집(50원, 1935. 3. 29) 등이 있고, 시찰단으로는 교육계·상공계·府廳의원·농림수산업·불교계 시찰단(1939. 5. 16) 등이 있었다. 1935년 조선으로부터 일본내지에 여행한 단체는 135개 5,500명이었다(동아일보, 1935. 11. 28).

3) 내국인의 국내여행

1930년대는 국내관광이 붐을 이루었다. 1938년 열차이용객이 45,053,752명으로 1911년 대비 약18배가 증가한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경부선 약7배, 경의선 약14배)(정재정, 409). 신문과 잡지에서 관광을 유도하는 사설과 권두언을 실기도 하였다(신민, 1927. 8).

〈표 5〉 부스러기 관광통계(1920-1930년대 내국인의 국내관광)

통계종류	보도내용	자료원
1926년 금강산 탐승객, 호텔수입	• 7,325명(외금강5,450, 내금강1,980: 전년대비1,677증가) • 온정리호텔 수입6,054원, 장안사호텔5,940원520원증가	1926. 11. 23
금강산탐승객수	• 1935년 35,000명 (단체 200개 8,000명) • 1938년 2만여명 • 1939년 5만여명	1935. 9. 11 1938. 5. 23
내장산 관풍객	• 1930년 3천여명	1930. 11. 8
평양역 이용객수	• 1935.5: 승차수178 단체12,774명, 강차수219/16,109	1935. 6. 8
평양 단체관광객	• 1938년 4월(33단체 2,260명), 5월(36개단체 2,579명)	1938. 5. 4
월미도 송도	• 1938년 1-4월(24만명), 하루(1939.5.4) 11,600여명	1938. 5. 5-7
경주탐승객	• 1933년(25,000명), 1934(31,000), 1935(40,000)	1935. 9. 11
단체여행신청	• 1938년3월(철도국접수25개2,300명 전국00/1 땅-6 천	1938. 2. 27

※ 1935년(1-11월) 조선방문 관광단체(일반, 만주/일본으로부터 온 수학여행단 등) 885단체 총 38,500명에 달함(동아 1935.11.28).

※ 동아일보에서 논자정리

(1) 개인관광(〈표 6〉 참조)

〈표 6〉 내국인의 개인 국내관광 관련 기사(1920-1940)

신문(건수)		잡지(건수)		
지역 순례	1. 철원기행 (동아 1920. 12. 02~) 9. 조선유람가(동아 1928. 6. 1~10)	9	1. 남해잡관 (신민 1925. 11) 18. 철도연선 (조광 1941. 4)	18
유적지 탐승	1. 약산 동대에서(조선 1923. 8. 6-9. 4) 2. 경주전학단(조선 1925. 11. 3-11. 10)	2	1. 명승소개경주(신동아 1932. 8) 7. 성자부여와내선관계(조광 1941. 7)	7
산강 탐승	1. 한강변남량지 순례(조선 1934. 6. 7) 4. 남량르포르타주(조선 1937. 7. 29-7. 31)	4	1. 금강산유기(조선문단 1924. 11) 52. 설악의 전설(조광 1942. 8)	52
도시 탐방	1. 평양의 단오(조선 1925. 6. 14) 6. 신비의경승지陽德邑(조선 1931. 10. 14)	6	1. 평양행(소년 1909. 10) 16. 서울거리 탐방기(조광 1942. 7)	16
온천		0	온천순례(신동아 1934. 9)	1

*자료원 : 신문, 잡지에서 논자 발췌·정리(일부만 게재)

(2) 단체관광

1920년대부터 단체관광에 관한 신문기사가 매월 평균 1회 내외로 등장하고 있다. 주최자는, JTB 조선지사, 철도국 각지역 운수사무소, 잡지사, 사회단체, 행정기관, 언론기관, 은행단, 상민회, 여행구락부, 종교단체, 경남합동자동차주식회사, 天一약방, 동양사진관·서원사진관, 동양당서점 등이다. 관광단규모는 일반관광단

〈표 7〉 내국인의 국내단체관광 분류(1920-1930년대)

관광단 종류	대상지 등	관광단 종류	대상지 등
선진도시 관광단	국내주요도시 14개소	조선박람회 관광단	조박(朝博:1929.9.12)
고적탐승단	평양 등 13개소	온천관광단	온양온천
자연경관 탐승단	금강산 등 47개소	수학여행	수학여행제한
동굴관광단	동룡굴(鯨龍窟)	원유(園遊)대회	회원원유대회(대구)
영화관광단(觀櫻團)	松田 만, 수원	남량승지	변산 一遇해수욕장
경성꽃구경	하루 3천-5천명	천연탄산수음료단	청안자전탄산수장 주최
복분자대회	밀양표충사	사상각회대회	동래, 김천
조선부업품공진회	1923년 10월 경성개최	경마대회관광단	1924년 부산 개최
물산공진회관광단	1927.4.8-15 진해개최		

※ 동아일보에서 논자 정리(일부만 게재)

10~40명, 조선부업품공진회 100-200명, 물산공진회 500명 이상, 조선박람회는 최

고 2,000여명이었다.

1933-1935년 기간 중에 부인탐승단이 있어 부인들의 단체여행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금강산부인탐승단 등), 해수욕장단원모집(변산一週)은 1934년부터 보인다(동아일보, 1934. 8. 1). 공진회나 박람회 참가에 참가와 관련하여 부작용도 적지 않았으며(동아일보, 1923. 10. 13), 시골관광단에 대해 상인의 천대, 야간매춘 등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시골관광단尾記, 1935. 5. 2)

2. 관광교통

선박과 기차가 주류를 이루었고 승용차와 비행기도 일부 이용되었다.

- 열차의 경우 경원선과 호남선(1914)등이 건설되어 조선은 주요 간선철도망을 일단 갖추게 되었다. 1932년에 이르면 주요구간 열차의 운행속도가 크게 빨라졌는데, 부산-서울(아까스카호, 6시간45분), 부산-新京(히까리호), 부산-봉천(노조미호), 부산-북경(직통급행열차, 1939. 11~2왕복, 38시간 45분)이 그것이다(정재성, 381-383).

관광열차는 1921년에 관화열차(觀花列車)라는 이름으로 5월 1일 개성의 桃花世界에 滿鐵 주최 경성-개성간 운행되었다(동아일보, 1921. 5. 1). 같은 해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경성관리국은 늦은가을 유람객을 위하여 평양유람 임시열차 운행하였다(10월15일, 1박2일, 등급제, 40전짜리 밥밥 제공)(1921. 10. 14).

- 선박의 경우, 국내선박여행 기록을 보면 飛行丸(조선기선: 조선일보, 1929. 7. 23)이 유일하다. 국제선박의 한일노선은, 신의주/진남포/인천/군산/목포/부산 각 항으로부터 고오베/오사카를 경유하여 횡빈에 이르는 노선이며 조선우선회사가 명령항로로 운항하였다(동아일보, 1920. 9. 24).

1923년 조선연안의 정기항로는 항로수 51개로 대부분 월 2-15회, 사용선박 64척, 외선 항로는 24항로 34척이었다(관부연선 제외)(1923. 8. 14). 한중간 노선은 1924.6.1.부터 조선우선회사가 인천-군산-목포-부산-상해-청도-인천노선에 운항을 시작하였고, 왕복 약20일이 소요되었다(1924. 3. 21). 한일노선은 1922년 1월 왕복횟수가 여객2회에서 1939년에는 3회로 증가하였고 소요시간도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미국 및 유럽은 요코하마와 고오베를 경유하여 갈 수 있었다. 보도된 1930년대 일본국제선박의 명칭은 郵船大洋丸, 跌父丸, 水川丸등이다.

- 자동차는 도로사정상 연결교통수단 또는 시내관광용으로 활용된 것 같다.

1920년 만철주식회사에서 예년과 같이 금강산유람객의 편의를 위해 7월1부터 원산역-온정리간 자동차 4대 운영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자동차운행이 있었던 같다(동아일보, 1920. 6. 28). 또한 경성에 유람자동차가 공식적으로 운행한 것은 1931.6.22로, 14개소, 소요시간은 4시간 반, 승차임은 2원 20전, 정원은 16명이다. 부산은 1931년부터 부산-동래-해운대 연락하는 온천유람버스로 고급승용차 4대를 매일 56회 왕복하였다(1931. 6. 24).

•비행기도 이 시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표 8〉 참조).

조선일보는 조선일주대비행(여의도-대전-진주)을 주최하여 항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조선일보, 1925. 4. 15), 경성-울산간여객기 시승기(1929. 9. 4), 평양 名妓들 비행기로 명창대회 참석(1930. 9. 22), 평양갑부들의 비행기 유람(1930. 4. 7) 등 기사가 있다. 1930년부터 유람비행이 시작되었다(〈표 8〉 참조).

〈표 8〉 일제강점기 항공교통

구분	내용	출처
외국비행기 착륙 (항공로 개척목적)	• 이태리비행기 신의주착륙(만여명 환영)	동1920. 5. 24
	• 세계일주비행기 대구착륙	동1926. 6. 6
	• 체코용사 평양착	조1927. 8. 30
	• 세계유람 米飛行機 여의도착(블터모어선지 사장단)	동1930. 4. 2
국내정기 노선	• 일본항공회사(日鮮滿항공회사), 주3-6회, 6-10인승 (동경)-울산-대구-경성-평양 신의주(대련, 선박일등침대값)	동1928. 12. 12 (1929년취항)
	• 일본항공수송주식회사 주관, 1930. 10. 19 울산비행장 일요일 오전9시, 오후2시, 10분 5원	동1930. 10. 27
유람비행	• 여의도비행유람(경성상공10분5원 경인간10월)	1931. 3. 3 동1931. 3. 2

*동(동아일보), 조(조선일보), 논자 정리(일부 게재).

3. 관광숙박

개화기에 현대적인 숙박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더욱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도시에만 가능하였고 지방이나 중소도시는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지역별 호텔과 여관을 정리하였다(〈표 9〉 참조).

1922년 조선히otel 지배인(和田與市씨)을 장안사호텔 지배인에, 부산호텔 宮川肇씨를 온정리 지배인에 임명하였다는 기사가 있다(동아일보, 1922. 6. 28).

여관은 일본여관, 조선여관, 은천장여관, 청루(靑樓:기생집)로 구분되어 있었다.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 절에서 숙박하고, 중식을 절에다 주문하기도 하였다. 海西雜記(조선일보, 1930. 7. 17)와 지방여관인상기(신동아, 1934. 8) 등 기사에서 지방여관에 대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에는 관광객을 위해 철도국이 7-9월에 四仙橋畔에 천막촌을 설치하였다(동아일보, 1931. 7. 16). 동굴에서 1박하는 탐승단도 있었는데, 무저동(無底洞) 동굴에서 1박이 그것이다(1934. 7. 22).

〈표 9〉 일제강점기의 숙박시설

지역	내용	출처
서울	호텔 조선호텔(滿鐵會社 건설, 조선철도국직영 69실/106명) 남대문동「元巴密 호텔」(1922), 경성역전「동양호텔(1923), 「경성호텔」(서울호텔:1920창립), 반도호텔(1930년)	동아, 조선 다수
	여관 남대문동 御成여관·大成여관	
금강산	호텔 「장안사호텔」(1924년 낙성, 만철경성관리국 경영) 6.1-10.15 운영, 미국인 관광단 예약	동1920. 6. 25
	여관 내금강 長安寺 경성여관 장안사 승려 振月이 운영하는 객주	조광 1937. 9 이광수, 30
정차장호텔	「철도호텔」 평양, 부산, 신의주	
지방	호텔 인천 월미도호텔(1929년계획), 부산「동래호텔」, 사리원 「장수산호텔」(1923년건축), 「신천온천호텔」(1925 준공)	동아, 조선 다수
	여관 신의주의 한성여관, 평양의 중앙여관·동양여관	

* 동(동아일보), 조(조선일보)에서 발췌, 정리.

4. 여행업, 관광안내, 관광안내서

① 여행업

일본여행협회(JTB)의 대만시찰단 모집(동아일보, 1932. 12. 23), 1925년 京城旅行案内社가 평양 단외관광(조선일보, 1925. 6. 14) 및 경주관광(동아일보, 1925. 10. 24)을 주최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JTB 조선지부는 앞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1938-1940년 기간 중에 철도국회의실에서 안내소 주임회의를 개최하였다(1940. 2. 28). 1939년 JTB 조선지부의 관광통계는 매상총액 3,938,115원(전년대비 48%증가), 알선단체 1,321개(618,66명:전년대비 27%상승), 국내에 10개의 안내소(경성 三越·경

성三中井·화신·평양·부산·대구·함흥·신의주·원산·대전),경성삼월이 내방자수, 알선자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1940. 5. 22).

② 관광안내

1921년 금강산 유람시 안내원의 안내를 받았고(이광수, 89), 1931년 경성 유람자 동차 운행에 “부인안내자가 동승하여 일일이 안내하는 바”라고 하고 안내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1931. 6. 21). 특히 월간지에 금강산 안내자 좌담회를 열어 안내자의 실명과 그들의 활동상 등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조광, 1937. 9, 68-77). 1937년 당시 금강산 안내자는 회원 14명, 최소한 1921년 이전부터 안내자가 존재했고(첫안내자 :승려韓聖安,안내자:嚴弼永·盧武丁(2대째)외 5명 실명확인), 정식 안내원이 있기 이전에는 승려들이 안내역할 담당하였으며, 이는 조선시대에 명산안내는 승려들이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당시 잡지(여성 1938. 3)에 여성들의 사적업으로 까이드걸, 버스걸, 톱켄걸을 소개하여, 여성안내원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이배용, 26).

1930년대에는 경성관광협회에서 경성방문관광객에게 식도원(食道園)에서 조선기생의 춤을 보여주고, 단체관광안내는 철도국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개인관광객에게는 협회에서 2원을 받고 충분히 안내하기로 하였다(동아일보, 1934. 3. 25). 부산관광협회에서 부산역구내에 관광안내소를 신설하였다(1937. 7. 22).

③ 관광안내서, 유람권 발매

•여행관련 잡지로는 「여행안내」(경성여행안내사, 1923, 20錢; 조선일보, 1924. 8. 11), 「전선철도여행안내」(전선철도여행안내사, 1928. 3. 15), 「국제관광」(1933. 2. 창간, 동경철도성 국제관광국내 재단법인 국제관광협회 발행 정가30전. 연4회 발행), 「여행」(동경일본여행구락부발행, 1935), 「관광조선」(1939. 5 일본여행협회/JTB 조선지부, 격월발행) 등이 있었다.

•철도국에서 단체여행에 관한 지식보급을 위해 「단체여행에 관한 상식문제」 2만부 발행하여 보급하였고(동아일보, 1938. 3. 9), 역에서 경주고적 탐승단에게 유람권(遊覽券)을 판매하였는데 1936. 5. 25-7. 31 기간 중 실시하고 불국사유람에는 자동차회사와 연합하였으며, 15일간 유효하며 성인은 1원이었다.

5. 관광홍보, 여행정보, 관광개발 등

① 관광홍보(〈표 10〉 참조)

〈표 10〉 일제강점기의 관광홍보

구분	내용	주관, 후원	출처
관광취미전람회	관광사업과 여행취미보급	경성관광협회주관	동 1934.4.12
관광홍보영화	“風光朝鮮”, “鮮滿北支여행”	국제관광국 제작	조 1938.8.14, 9.4
	선전용 관광영화 촬영 “四季의 朝鮮”	경성부 조선총독부 철도국	1939.3.14 1939.6.9
관광사진전	경성관광풍물 현상사진	경성부총무부, 내무과사무계 관서사진연맹조선지부	1939.10.1
관광광고	고적(경주, 부여), 온천관광(동래, 유성, 온양)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지광1호, 신동아1·6·24호
신문광고	금강산, 동룡굴 등 관광단	동아, 조선 등	매일

*동(동아일보), 조(조선일보), 논자 정리.

② 여행정보

여행이 다소 대중화되면서 건강과 의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되었다. “눈이 약한 이는 산으로 가라”(조선일보, 1925. 7. 29-7. 31), “체질에 따라서 피서지를 선택하라”(1926. 8. 7-8. 9) 등의 건강관련 기사와 “여름 여행의 옷단속은 산뜻하고도 소박하게”(1939. 8. 7)와 같은 의상관련 기사도 있었다.

③ 삼업조합, 기생학교, 등

- 관광사업체간의 조합 구성 :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목적으로, 강서 약수 지역의 여관, 음식점, 요리점으로 三業組合을 구성하여 16개 여관업에서 이천명 수용하였다(강서약수 탐방기, 1929. 7. 25-7. 27).
- 1930년도 까지도 기생학교 존재 : 황해도 안악 기생강습소, 4급(가사반, 노래반, 시조반, 잡가반)으로 교육(해서잡기, 1930. 7. 17-7. 22).
- 함남 흥원군 운포면에 觀光學校가 있었다? “교원 격투, 관광학교 불상사”(동아일보, 1927. 9. 10)라는 기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④ 관광개발계획

금강산 관광 정비 실편(드라이브웨이정비, 만물상 등에 다점증설 등 : 동아일보, 1937. 10. 29). 경성에 오락지대계획(외국인 관광객 유치 오락기관 本町 부근8천평에 집중 확충, 실시미상, 1939. 5. 10). 금강산 관광자원으로 개발 사치품이 아닌 외화획득의 관광자원이 되도록 개발(1940. 8. 6)등 기사가 있었다.

⑤ 관광협회 및 연맹 창설

• 조선관광협회 창립 : 철도국 영업과가 주체가 되고 총독부, 경성부상공회의소가 일치하여 1933. 2. 10 총독부회의실에서 회의 개최(1933. 2. 12).

• 조선관광연맹결성 준비회 개최 : 경성관광협회주관으로 지역관광협회(평양, 원산, 부산, 청진, 함흥 등)와 연맹결성(1939. 11. 29).

V. 관광사적 특징 및 의미

동서양을 통해 관광이 본격적으로 국제화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교통수단의 발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에 개발된 서양 교통기술이 일본, 러시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조선방문 및 내국인의 관광확산에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표11〉 개화기의 관광사적 특징 및 의미

구분	현상	시기	특징 및 의미
관 광 유 형	외국인조선 방문개시	1880년대 시작 1890-1900 전성기	조선이 최초로 국제관광시장에 알려짐 - 선방문기 20여편 출간개시
	내국인 국외여행개시	1880년대-1900년대초	조선인 외국여행(구미)이 최초로 시작됨 초기(외교관, 왕족), 후반부(유학생)
관 광	내국인 국내관광	1880-1890년대말 1900년 한일합방	전통적 관광유형 지속 철로를 이용한 장거리여행 시작 (경인, 경부간)
	철로이용관광	1900년 한일합방	관광교통수단의 획기적 변화
관 광 교 통	국제기선해운	1880-1890년대말 1900년대초	한·중·일·러 국제해운 개시 구라파노선 운항개시
	국내기선해운	1890년대 중반	국내정기해운 개시
숙 박	호텔등장	1880-1890년대 1900- 한일합방	제물포 중심으로 서양식 호텔 등장 서울에 서양식 호텔 등장

첫째, 전체적으로 이 시대를 개화기면, 개화기를 통해 조선과 조선인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관광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관광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현대관광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정리하였다.

〈표12〉 일제 강점기의 관광사적 특징 및 의미

구분	현상	시기	특징 및 의미
관광유형	서구인 단체관광개시	1920년대 상황	외국인단체 유람선관광단 입국 시작
	일본인 단체관광단	1930년대 상황	일본-조선-만주(北支)
	내국인 국외여행	1920년대 중반시작	구미여행(주로 전문직 종사자)
		1930년대	최초의 단체 포괄여행(대만중국 및 일본) 관제여행(박람회, 공진회 등) 대규모참가 北支(만주)시찰단, 수학여행단
관광교통	국내단체관광	1930년대	포괄화, 조직화, 다양화, 장거리화
	철도여행	1910년대철도망완성	국내단체관광을 가능하게 함
		1930년대 전성기	조선-중국간 국제철도여행 가능
	선박여행	1920년대 ~	한일노선중심, 조선연안정기항로 일본경유 미국행 가능
숙박기타	유람자동차, 유람비행	1929 ~	시티투어 시작, 유람비행기 운항시작
	서양식호텔 확산	1920년대 ~	서울, 인천, 부산, 철도호텔 등
	관광관련, 안내홍보, 개발·조직 등	1920~30년대	관광안내서발행(1923~), 관광홍보영화(1934~), 관광개발계획(1937~) 등

VI. 결론

본 연구는 근대라고 불리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관광현상을 통해 이 시기의 관광사적 의미와 성격을 구명하려 하였다.

개화기는 역사적으로 근대화의 시발점이므로 관광 역시 그 영향권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국내관광은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전통관광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외국 선교사 등의 영향으로 다소 근대적인 형태의 관광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은 특수계층이나 신분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외국인의 조선여행은 외교관, 선교사, 의사, 지리학자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화기 조선은 이들 외국인들의 조선여행을 통해 국제관광무대에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해야할 것 같다.

일제강점기 국내관광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교통수단의 발전이었다. 철도, 선박, 비행기의 등장은 국내관광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하였다. 귀족층의 명승탐방에서 벗어나, 대규모·장거리·단체화·조직화되어 보다 넓은 층의 국민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물론 통계 숫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교통수단과 함께 호텔 등 고급숙박시설이 등장하였고, 철도국·관공서 등이 주도하여 신문에 관광단체를 공개모집하는 등 관광을 권장하고, 각종 물산회 등 관제행사외의 동원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 국제관광은 국내관광과 그 규모에 있어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개화기에 비하면 과히 변혁이라 할만하다. 국내체재 외국인이 수만명에 이르고, 거의 매일 한 편이상의 국제선박이 제물포를 드나들었다. 상당수의 개인이 국외여행을 하여 그 여행기를 잡지에 게재하였으며, 연간 수백개의 국제단체여행단이 형성되어 한·중·일·러 사이를 왕래하였으며, 멀리는 미국·구주까지 이르렀다. 역사 이래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관광객들이 다양한 유형을 관광을 하게 된 것은 이 시기가 처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는 현대관광으로의 큰 전환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개화기는 우리나라 국내관광의 근대적 변화의 시발점이며, 국제관광의 여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일제강점기는 국내외 관광에 있어서 현대관광의 출발점이라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참고문헌

- 1880~1940 발행 신문 7종 및 잡지 10종 : <표 1> 참조
단국대동양학연구소(2004). 『개화기한국과 세계의 상호교류』, 국학자료원.
게일, S.(1999).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플라라보티에 외(2002). 『프랑스외교관이 본 개화기조선』 태학사.
드레이크 H. B.(2000). 『일제시대의 조선생활상』, (신복룡 역). 집문당.
류대영(2004). 『개화기 조선과 미국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뮐렌도르프, P. G.(1999). 『뮐렌도르프 自傳(외)』, 집문당.
민영환(1996). 『海天秋帆』, 을유문화사.
비숍, I. B.(1999).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집문당.
새비지-렌도어, A. H.(199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스티븐 암브로스, 손원재역(2003). 『대륙횡단철도』, 서울대출판부

- 오정환(2002). 『호텔관광사연구』, 현학사.
이광린(1999). 『한국개회사연구』, 일조각.
이광수(1998). 『금강산유기』, 실천문학사.
이배웅 외(2003).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개화기-1945)』, 청년사.
임희완(2000). 『역사학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정재성(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출판부.
정찬중(2004). 『관광학원론』, 형설출판사.
캠프. E.G(1999). 『조선의 모습』, 집문당.
한경수(2001). “한국관광사연구의 현황·접근방법”. 『관광학연구』, 36, 한국관광학회.
한경수(2002). “개화기 서구인의 조선여행”. 『관광학연구』, 40, 한국관광학회.

2005년 6월 8일 접수
2005년 8월 21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 심사 특

K C I